

광주U대회 참가 선수들 아시아나 항공기 탄다

市-아시아나항공 후원 협약

항공료 120억~150억 지원

내년 7월 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이하 광주U대회)에 참가하는 외국 선수단이 명품서비스를 자랑하는 아시아나 항공을 타게 됐다. 아시아나항공이 광주U대회 참가 외국선수단의 항공료를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이 부담할 항공료는 120억~150억원대로 추정되며, 광주시의 선수단 항공료 예산 부담도 모두 사라지게 됐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김윤석 U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사장은 30일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항공부담 공식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대회 최고 등급인 글로벌프리미엄 파트너로서 항공권과 수하물 등 대회 참가 선수단을 위한 항공 관련 서비스를 후원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협약에서 지난 2009년 대회 유치 당시 약속한 170개국 1만3500명(U대회 조직위원회 추산)의 외국 선수단 항공료 일부 지원 방침을 다시 한번 약속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또 전 세계 100여개 노선을 오가는 항공기 내에도 자체 매체를 통해 U대회를 홍보하는 등 대회 볼 조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U대회 조직위는 아시아나에 후원사 명칭 사용권과 대회로고·복합로고 사용권, 선수 번호판 광고권, 경기장 A보드 광고 등 글로벌 프리미엄 파트너 권리를 제공하게 된다.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사장은 이날 협약에서 "전

세계 젊은이들의 스포츠 축제인 U대회가 성공적으로 준비되고 개최될 수 있도록 후원사로서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장현 광주U대회 조직위원장도 "글로벌 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이 U대회를 후원하게 돼 영광

이라면서 "U대회가 단순한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지역 청년일자리 창출 등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U대회는 내년 7월3일부터 14일까지 12일동안 광주와 전남 일원에서 개최되며, 170여개국

에서 최대 2만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이다.

U대회 조직위는 그동안 SK C&C(IT), SK텔레콤(통신), 기아자동차(수송) 등과 글로벌 파트너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30일 오전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2015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아시아나항공 후원사 협약식에서 윤장현 조직위원장(오른쪽)과 김수천(왼쪽) 아시아나항공 사장이 공식 후원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세월호' 진도군민 어려움

생계복구 지원 확대 촉구

군민대책위·도의회, 대정부 건의

진도군의 각계각층 58개 단체로 구성된 진도군민대책위원회가 30일 오후 세월호 범정부사고대책본부 관계자들을 만나 진도 생계복구를 위한 4대 건의안을 전달했다. 전남도의회도 이날 세월호 참사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진도군민 피해 보상과 농산물 주산지 보호, 순천만정원 국가정원 지정 등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표했다.

진도군민대책위는 이날 진도군청에서 열린 정부관계자와의 면담자리에서 "세월호 참사 여파에 시달리는 진도군에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조도면 지역에 국한된 생활안정자금 10억원, 수색참여 어선보상금 3억여원 등 모두 13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데 그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 확대 ▲어민 특별영여자금 지원 확대 ▲학생 급식비 등 지원 ▲어민 어구 손상 및 조업 중단 피해 보상 등 4대 대정부 건의안을 정부관계자들에게 직접 전달했다.

전남도의회도 이날 288회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사고 수습 장기화로 관광객 감소, 양식장 기름유출 피해 등 직간접 피해액이 900억원을 넘고 있다"며 "현실적인 보상책 마련과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또 농산물 주산지 보호 특별법 제정과 함께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도 촉구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나주소반' 국가 지정 문화재 된다

무형문화재 김춘식씨 소반장 인정 예고

전남도는 30일 도(道) 무형문화재 제14호 '나주소반(羅州盤匠)' 기능 보유자 김춘식(78·사진)씨가 국가지정문화재인 중요무형문화재 제99호 소반장(小盤匠)으로 승격 인정 예고됐다고 밝혔다.

소반장은 음식 그릇을 올려놓는 작은 상(床)인 '소반'을 만드는 기술과 그 기능을 지닌 장인이다. 소반은 우리나라 식생활에서부터 제사의례까지 다양도로 쓰이는 부엌 가구다. 종류는 산지, 형태, 용도에 따라 나주반·해주반·통영반·종주반 등으로 구분된다. 나주소반(사진 아래)은 잡다한 장식이나 화려한 조각 없이 소박하고 튼튼한 짜임새로 견고함과 간결함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김씨는 해방 후 거의 형태가 사라진 나주소반의 맥을 이은 장인으로 평가됐다. 19세부터 나주에서 4대째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

나주소반은 1986년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가 이번에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 예고됐다. 김씨는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친 뒤 중앙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정식 인정된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주민번호 대신 공공I-PIN·생년월일로 대체

광주시·전남도, 내달부터 수집금지따라

다음달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의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면서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한 일선 자치단체들이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30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주민 민원과 관련된 행정절차에서 주민번호가 사라진다. 또 광주시와 전남도 홈페이지를 비롯한 자치단체, 시·도 산하 사업소 등 공공기관은 홈페이지 회원 가입 때 주민번호를 활용한 실명확인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민번호를 넣고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하던 게시물 작성이 가능했던 부분은 일부 개선된다. 자치단체들도 주민번호 대신 공공I-PIN,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행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동안 대형폐기물신고, 심폐소생술 교육접수, 평생교육 수강 등을 할 때 주민번호 확인절차를 거쳤으나 앞으로는 생년월일을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광주 서구청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에 있는 주민번호 기재란을 없애는 등 조례 등을 전면 재점검해 주민번호 활용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주민번호 수집 금지 내용을 알리기 위해 관련 현수막을 도심 곳곳에 설치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특히 공공기관 내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사례가 없는지를 꼼꼼히 점검해 다음달 7일 이전까지 모두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진표·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57억 들인 4대강 '로봇물고기' 불량품

감사원, "제대로 해엄 못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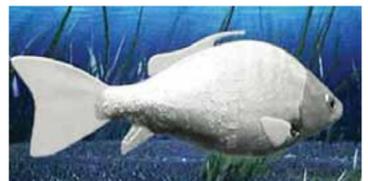
전원 이명박 정부의 최대 국정사업인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강물의 수질을 조사하기 위해 개발된 '생체모방형 수중로봇(이명 로봇물고기·사진)'이 제대로 해엄을 하지 못하는 불량품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30일 "지난 1~3월 로봇물고기 연구개발사업 등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소의 R&D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위법·부당사항 4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국회가 지난해 11월 감사를 요구함에 따라 이뤄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로봇물고기는 4대강 수질 조사를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강릉 원주대,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이 산업기술연구회로부터 57억원을 지원받아 2010

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개발했다. 산업기술연구회는 개발이 완료된 뒤 이 사업이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감사결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제출한 최종 결과보고서에는 유영속도 등 정량 목표 측정결과가 일부 누락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감사원이 그동안 제작된 로봇물고기가 사업계획서상 목표에 부합하는지를 직접 테스트한 결과 모두 불량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따뜻하게

연탄 한 장 500원, 하루 세 장 1,500원, 한달 난방비 4만 5,000원...

모두가 따뜻하게 모두가 행복하게

우리 모두가 꿈꾸는, 우리 모두가 만들어야 할 세상입니다.
따뜻한 우리 모두의 세상을 위해
오늘도 우리는 지하 1,000미터 막장에서
온기를 내고 있습니다.

서민의 따뜻한 벗 대한석탄공사